



배당주펀드와 삼성그룹주펀드

1. 개인에서 기관으로 운용시장의 주도권 이동

- 작년 하반기부터 정치사회적 불안감으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가 이어짐. 연초 이후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인 MMF로 20.3조원 순유입
- 2011년 이후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주식펀드는 환매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투자규모 감소. 반면, 기관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일임은 투자 규모 증가
- 연기금과 보험 등의 운용자산이 늘어나면서 향후 자산운용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

2. 배당주펀드는 중장기적으로 성과 우수

- 규모를 감안하면 액티브주식펀드나 배당주펀드에 비하여 중소형주펀드의 환매 규모는 크지 않음
- 최근 들어 배당주펀드는 연말 투자자금 유입, 연초 투자자금 유출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주식펀드 유형 중에서 배당주펀드는 장기성과가 가장 우수.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향후 투자에서도 배당주펀드는 고려할 필요가 높음

3. 주가 강세의 기회를 잡은 삼성그룹주펀드

-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그룹주펀드의 성과가 액티브주식펀드보다 우수한 상황.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은 인덱스삼성그룹주의 수익률이 더 높음
- 펀드 성과가 좋아지면서 삼성그룹주펀드의 환매는 커지고 있음.



주식시장 투자전략

1. 개인에서 기관으로 운용시장의 주도권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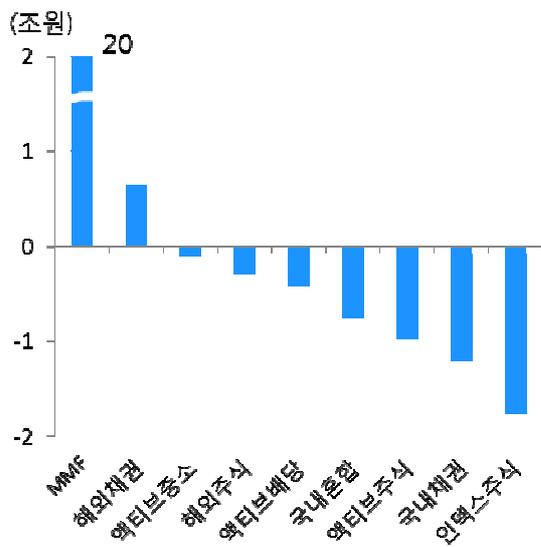
작년 하반기부터 정치사회적 불안감으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초 이후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인 MMF로 20.3조원이 들어왔으나, 국내주식펀드와 해외주식펀드 등 투자상품에서는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이후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주식펀드는 환매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투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 기관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일임은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1년말 국내주식펀드와 국내주식일임 자산 규모는 각각 73조원과 44조원이었으나, 지난 2월말 자산규모는 54조원과 8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KOSPI 시총대비 국내주식펀드의 순자산의 비중은 2008년 10%에서 2016년 4.4%로 줄어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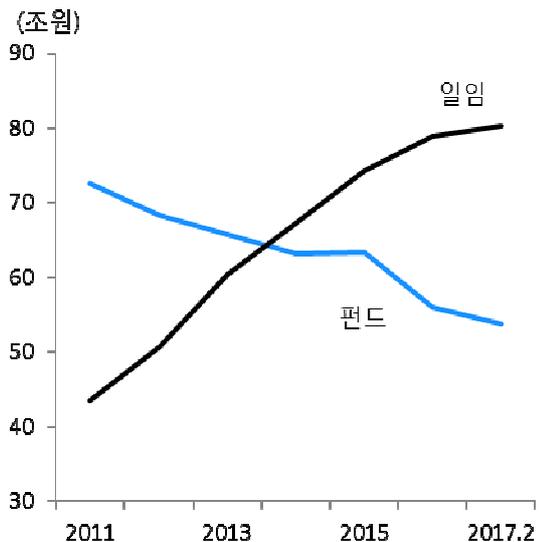
국내주식펀드는 2008년 85.8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국내주식일임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8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화로 연기금과 보험 등의 운용자산이 늘어나면서 향후 자산운용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트1] 연초 이후 MMF 로는 20조원 들어왔지만, 국내주식펀드와 해외주식펀드에서는 자금 유출 지속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2011년 국내주식펀드는 국내주식일임보다 29조원이 많았지만, 불과 6년만에 27조원이 적어짐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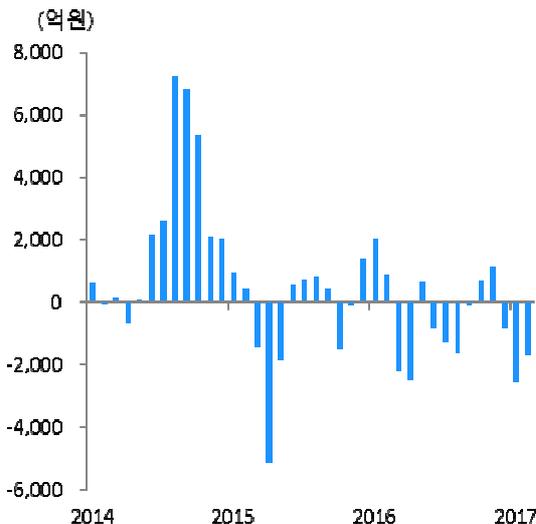
2. 배당주펀드는 중장기적으로 성과 우수

2월에는 액티브주식펀드 4469억원, 배당주펀드 1626억원, 중소형주펀드 712억원의 설정액이 순감소하였다. 설정규모가 각각 17.6조원, 4.9조원, 3.1조원 것을 감안해보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펀드의 설정액 감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6개월간 유형별 성과는 액티브펀드 -0.77%, 배당주펀드 0.99%, 중소형 -6.95%, 인덱스 4.22%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형주펀드는 1년 수익률도 -10.8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매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KOSPI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액티브펀드나 배당주펀드에서 환매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펀드의 5년 성과는 배당주펀드 30.51%, 중소형주 19.35%, -2.68%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배당주펀드는 4분기 자금유입, 1분기 자금유출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로 배당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배당주펀드에 대한 투자전략은 유효하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주펀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차트3] 작년 하반기 1850억원이 순유입되었던 배당주펀드에서는 최근 3달 동안 5000억원 순유출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2004년 이후 배당주펀드는 꾸준한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음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액티브주식배당 유형 누적수익률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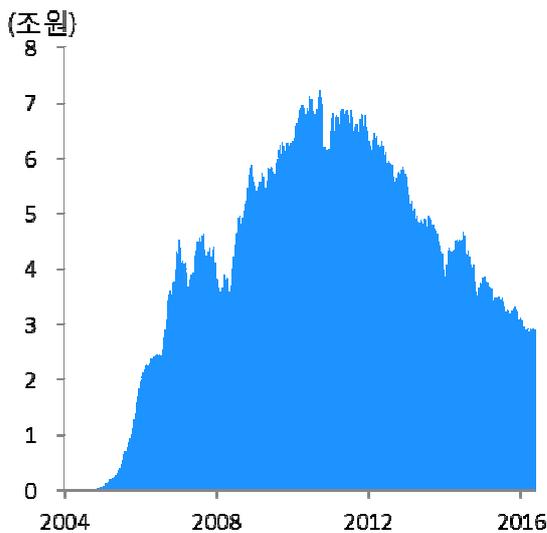
3. 주가 강세의 기회를 잡은 삼성그룹주펀드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삼성그룹주펀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 삼성그룹주펀드는 그룹주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삼성그룹주펀드의 성과는 액티브주식펀드의 성과를 크게 앞선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삼성그룹주펀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으며, 3년과 5년 수익률은 각각 -11.57%와 -18.08%를 기록하고 있다. 성과 부진으로 삼성그룹주펀드에서는 자금 이탈이 이어져왔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그룹주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8.93%로 액티브주식펀드의 성과를 앞서고 있다. 삼성그룹주펀드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삼성그룹주 인덱스펀드의 성과가 더 우수하다.

하지만 최근 3개월동안 삼성그룹주펀드의 설정액은 2653억원이 감소하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투자심리 위축과 펀드 수익률 반등으로 삼성그룹주펀드에서 환매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차트5] 2010년 이후 삼성그룹주펀드의 순자산은 계속된 환매로 감소 추세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 채권혼합, 인덱스, 목표전환 유형 등의 삼성그룹주펀드 대상

[차트6] 삼성그룹주펀드는 2010년 이후 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나, 최근 수익률 반등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 채권혼합, 인덱스, 목표전환 유형 등의 삼성그룹주펀드 대상